

은혜로 된 바울

Grace Made Paul

고린도전서 15:9-1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4월 28일 설교

⁹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¹⁰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신약성경이 스물일곱 권인데 거의 절반인 열세 권을 이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특히 구원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당신의 뜻을 참 많이 알려주셔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또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을 이루셨는지, 참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 거의 대부분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예수가 곧 구주이심을 전했고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 받은 이후에는 로마제국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런 전도 여행을 세 번을 하고 마지막에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얼마지 않아 로마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수십, 수백 명이 모여도 하기 힘든 일을 바울 한 사람이 했으니 사실 위대하다는 말도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특히 바울 자신이 한 말을 잘 새겨 보면, 바울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위대하지요. 그렇지만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달았거나, 그 진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닫고 전한 그 진리를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한 낱말로 줄이면 은혜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평생을 바쳐 사람들에게 전한 것도 은혜입니다. 자신이 조금도 위대하지 않음을 보여준 그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바울 자신의 생애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 사울

바울의 첫 이름은 사울인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한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 왕 이름을 따 처음 사울이라 한 모양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곧 정통성을 가진 유다 왕국에 속했던 유일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상 12:21). 유대인이라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 가문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사울은 빼대 있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내가 팔 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 3:5-6).

사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는 나중에 바울이 되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지역으로 지금 터키 남쪽 지역입니다. 거기서 났지만 날 때부터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니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유대 혈통입니다. 난지 팔 일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집안 출신입니다.

공부는 예루살렘에 와서 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가말리엘 문하에 들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행 5:34). 사울은 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했습니다 (행 22:3). 바리새파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분파였습니다 (행 26:5). 그 엄격한 바리새파 규정을 사울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 지킨 걸로 따지면 “흠이 없다” 다시 말해 완벽했다 하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됩니다. 율법 지킨 걸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사울이 단연 일등입니다. 유대교를 믿되 철저하게 남다른 열심으로 믿고 실천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갈 1:14).

잘못된 열심

사울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교회를 박해한 일입니다. 사울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직접 설명합니다. “(나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행 22:3-4).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야 좋아하시는 분이데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 16:2).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고 박해할 거라 하셨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박해했는지 스승 가말리엘과 비교해 보면 압니다 (행 5:33-39).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인 가말리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박해는 반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는 사도들이 감옥에 넣는 정도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다 죽여 버리자 했습니다. 그러자 가말리엘이 일어나 말렸습니다. 만의 하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서 싸우는 셈 아니냐?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제풀에 꺾일 거다. 그러니 박해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그 말이 맞다 하고는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매질만 하고 석방했습니다.

지나친 열심

사울도 공회 회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겠지요. 하지만 사울은 공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저 혼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선동을 한 거지요. 일곱 집사의 하나로 뽑힌 스테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자꾸 하니 사람들이 스테반을 모함하고는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함한 사람들 가운데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사람도 있습니다 (행 6:9). 사울이 뒤에서 조종했는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뒤 성 밖으로 끌려 나가 돌에 맞아 순교한 다음 보니까 스테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옷을 벗어 다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테반을 자기가 죽였다는 소립니다. 그런데 그건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가말리엘의 의견대로 핍박을 한동안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다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작전이 성공한 거지요. 공회를 다시 엮은 사울은 교회를 더 열심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 공회에 넘겼습니다 (행 8:3). 그러면 공회는 이들을 감옥에 넣었고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떠나고 없는데도 박해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행 9:1-2; 22:4-5; 26:11).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마저 끌고 와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겠지요? 아니지요. 정말 엉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남

그런데, 그러던 사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참 엄청난 변화인데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당사자 아닙니까? 예수께서 참다 참다 못해 사울을 직접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지요. 미리 준비해 두신 그릇을 때맞추어 쓰시려고 이 때쯤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인을 더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정오쯤 되어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쳤습니다. 정오니까 햇빛이 아주 센 시간인데 그것보다 더 강했으니 밝은 무대에 있던 주인공에게 더 강한 조명을 쏜 것 같았겠지요. 빛이 비치는 순간 보통 빛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우선 앞이 안 보입니다. 게다가 꺼꾸러지듯 땅에

쓰러졌습니다. 강력한 빛에 제압을 당한 겁니다. 주님한테 혼이 나는 거지요.

그렇게 엎어져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히브리말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앞도 안 보이니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구신지요?” 아마 감은 잡았을 겁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느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가짜 메시아거든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좀 헛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물었겠지요. “누구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이 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 이 한 말씀으로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누가 할 일을 가르쳐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순종이지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가 않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행 9:8-9, 11).

부름을 받음

예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 사울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주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왔다고 합디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괜찮다. 가거라.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도 즉각 순종입니다. 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여!” 형제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뜻을 전합니다. “내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께서 지금 네가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하니까 즉각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렸으니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행 22:16). 지난 사흘간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울은 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사울을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이 때다 싶을 때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 1:15-16). 만나긴 방금 만났지만 그 주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주님 것으로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계시

그럼 이렇게 부름 받은 사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해 준 일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찾아 오셨습니다. 내가 누구니까? 주 예수를 안 믿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박해도 보통 했습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 감옥에 넣고 심지어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를 가르친 스승이 박해를 그만하자 하고 공회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난 인정 못 한다 하면서 뒤로 공작을 꾸민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나를 죽도록 때리셔도 되는데 그래서 정말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데 꾸중 한 마디 없이 용서해 주시고 일까지 맡기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게 구원입니다. 사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하시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용서로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이거, 이유가 없는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다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이어서 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요? 유대인이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열심이 지나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주시는 거구나. 사울이 깨달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걸 여기 저기 편지로 써 전했더니 그게 모여 성경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걸 깨닫고 나니 지난날의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얼마나 뻔했습니까? 율법 잘 지켰노라고 얼마나 뽐냈습니까? 지금 생각하니 낮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깨달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라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엡 3:6). 사울이 깨달은 비밀, 성경에 기록한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능력

은혜를 맞본 사울은 이제 남은 생애를 주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관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감겼던 눈이 열렸습니다. 유대인이던 것, 율법 열심히 지키던 것이 부끄러워지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지 그것도 보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온통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수고를 얼마나 했는지 우리 다 잘 알지요. 빌립보에서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돌에 맞을 때는 제가 죽인 스테반 생각도 많이 났겠지요. 바울이 제 입으로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후 11:23-27).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했지요? 바울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박해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었으니 은혜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던 사람이 율법과 무관하게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입니다. 그런 과거 때문에 사도 가운데 자기가 가장 형편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라는 이름조차 과분하다 합니다. 전에는 자부심이고 보람이던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일 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맞보는 순간 지난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고백도 놀랍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다. 그거 안다고 교만한 것 아닙니다. 음식 잔뜩 차려 놓고 차린 게 없다 하는 건 성경의 겸손이 아니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거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 고백하는 이게 겸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주 예수를 만나 구원 얻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 힘 있는 은혜, 능력이 있는 은혜여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이 많은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참 겸손입니다.

모든 게 은혜

사울로 시작해 바울로 끝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피며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하던 사울을 깔끔하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나를 관찮게 살았지만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삶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도 대체 알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착해서, 공부 잘 해서, 얼굴 잘 생겨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 또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같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가 좋아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어느 초등학교생이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는 문제에 답을 뭐라 썼다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명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정말 영원한 우주의 수수께끼입니다. 이유는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 하나님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압니다.

둘째로 은혜의 구원이 우리 눈을 열어준다는 걸 배웁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는 순간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에는 안다 생각했고 내 옳은 대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순간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한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자랑거리가 지금은 시시한 게 되었고 전에 열심히 하던 그게 지금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 구원의 비밀도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열정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 지난날이 헛되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잠시 어두워졌던 눈이 사흘 뒤 환한 눈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전에 자랑하고 싶던 것들,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나 싶던 것들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은혜 말고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나를 왜 이리 사랑하시는지 그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그것만 말하고 싶어집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잘못 나갈 때도 완전 파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면서 얼른 하나님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셨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켜 오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당신의 것으로 택하셨다는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내 모든 삶의 원동력은 오직 은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도 내 속에서 나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그 힘이 한 겁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랑은 꿈도 못 꾸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요, 주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은혜는 없이 내가 하면 늘 문제가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거나 칭찬을 듣기 위해 하고 때로는 자기만족을 위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배운 건 있어서 말은 주님 은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를 빙자한 자기자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내 마음도 압니다. 은혜가 아니면 헛일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설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때로 힘들 때도 있지요. 그 때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소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깨달는 세 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 눈을 열어 주었고 우리 앞날도 인도할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에 바울의 가르침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뻗뻗한 구름을 이루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걸로 안 됩니다, 하면서 더 달라고 떼를 씹시다. 우리 다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진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권수경 목사)